

Jeep Story

My First Ride

My Jeep Story

Road Trip

Driving Direction



FREEDOM
OF JEEP



LINE UP



GRAND CHEROKEE

WRANGLER

RENEGADE

CHEROKEE

COMPASS



AUTUMN ROAD TRIP

가을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많지만 가을은 길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길을 달리는 즐거움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떠나본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행의 목표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작가 헨리 밀러의 말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Jeep는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CONTENTS

p. 06

DRIVING DIRECTION

Jeep Korea 파블로 로쏘 사장

p. 10

ROAD TRIP IN JEJU ISLAND

Jeep와 함께 떠나는 제주 로드트립

p. 20

THE JEEP LIFE

오피니언 리더의 드라이빙 라이프

p. 26

PEOPLE

Jeep 오퍼 인터뷰 &
인플루언서 시승기

p. 43

NEWS & EVENT

Jeep 신차 & 이벤트 소식

p. 46

JEEP MAN

정비서비스팀 이완규 차장

p. 48

JEEP MAP

Jeep 서비스센터





A WAY OF LIFE PABLO ROSSO

Jeep Korea 파블로 로쏘 사장

멀리서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더니 흰색바이크 한 대가 달려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가로수 그림자가 드리워진 도로를 따라 Jeep Korea 파블로 로쏘 사장이 혼다 클래식 바이크를 몰고 달려오고 있었다. 헬멧을 벗고 자연스럽게 “안녕하십니까?”라며 악수를 청하는 그에게서 한껏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년이면 파블로 로쏘 사장이 Jeep가 속한 FCA에 합류한 지 20년이 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는 지난 20년의 세월 대부분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글로벌 시장을 담당했다. 올해는 그가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는 해다. “제가 가본 모든 나라가 특별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유구하고 자연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직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살기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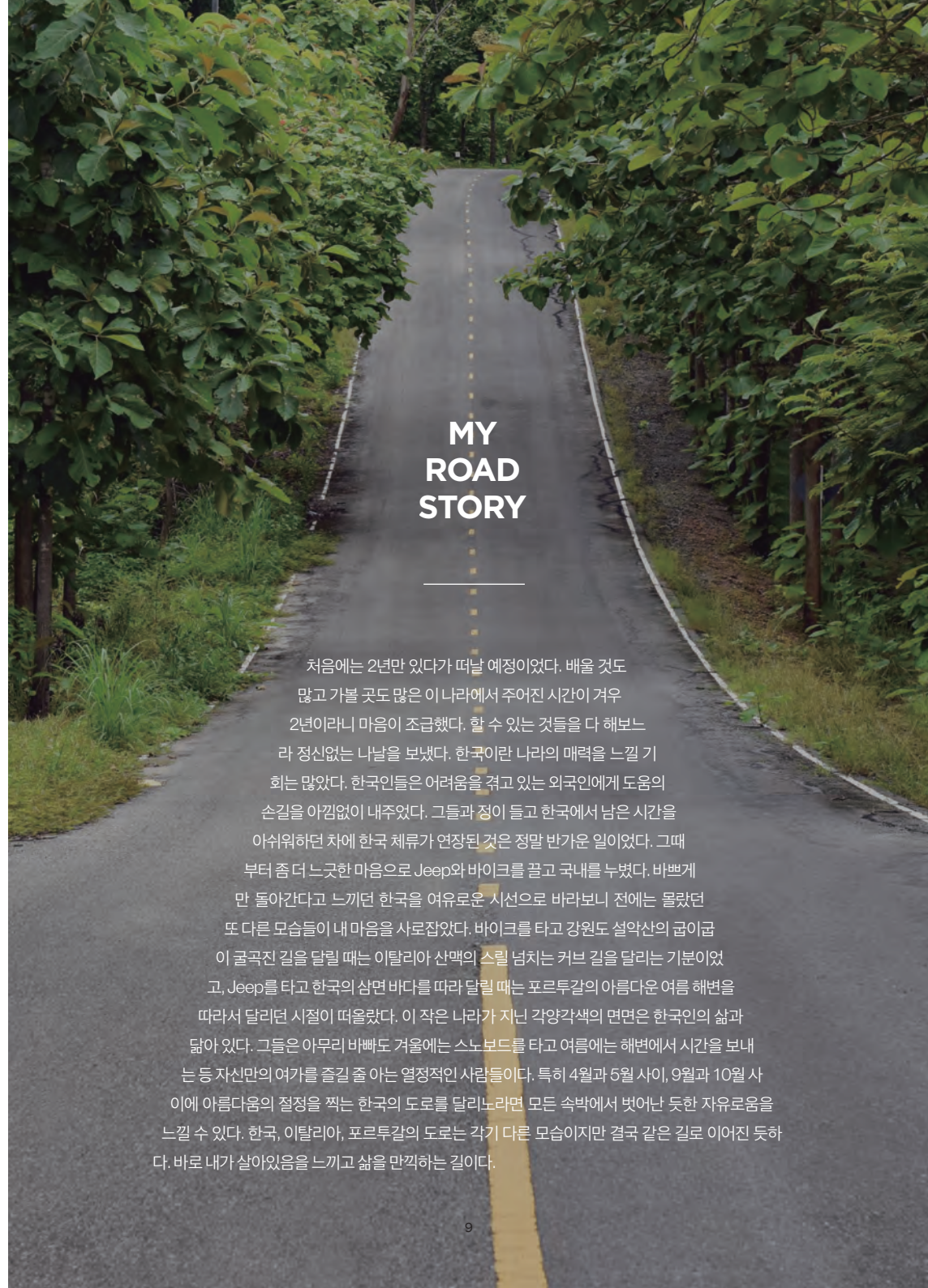
로쏘 사장이 라이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에 근무할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발렌티노 로시 선수가 모터사이클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였다. 로시 선수의 열정 가득한 경기에 감명을 받은 그는 이후 포르투갈에 체류하며 라이딩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베스파, 두카티 바이크를 모두 가져간 로쏘 사장에게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해변은 라이딩의 묘미를 더해주기에 충분했다.

한국에서도 그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그의 클래식 바이크를, 때로는 Jeep WRANGLER와 GRAND CHEROKEE를 타고 속속나 부산을 향했다. 바이크를 탔을 때 전달되는 감성과 Jeep를 탔을 때의 감성은 비슷한 듯



다르다고 그는 설명한다. "라이딩은 오로지 나와 바이크만 달리는 여정이예요. 바이크 라이더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순간은 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죠. 땅에 닿을 듯이 몸과 바이크를 기울여 커브를 매끄럽게 돌 때의 쾌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가 생각할 때 트럭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 바이크 라이딩의 매력이라면, Jeep 드라이브의 매력은 좀더 편안하게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고 또 그 감흥을 동행자와 서로 나누는 교감에 있다. "바이크 라이딩에 비하면 Jeep 드라이브는 사교적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오프로드, 아웃도어 활동은 함께할 때 즐거움이 배가되거든요. Jeep는 가족과 친구, 다른 운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삶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로소 사장은 Jeep 차량 중에서 WRANGLER를 가장 아낀다. Jeep의 공간이 된 모델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길이

없는 전천후 성능 때문이다. 루프를 젖힌 채 달리기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물론 Jeep의 다른 모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어느 모델을 택해도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Jeep 드라이브 혹은 바이크 라이딩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결국 맞닿아 있다. "우리는 Jeep가 추구하는 가치를 진정성, 열정, 자유, 모험, 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진정성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결이 다를 수 있으나, 그 밖의 열정, 자유, 모험은 모든 형태의 드라이브와 라이딩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삶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 세상의 다양한 순간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면서 한번쯤 길 위에 서는 것에 도전해볼 만하죠." Jeep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길 위를 달릴 것이다.



MY ROAD STORY

처음에는 2년만 있다가 떠날 예정이었다. 배울 것도 많고 가볼 곳도 많은 이 나라에서 주어진 시간이 겨우 2년이라니 마음이 조금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한국이란 나라의 매력을 느낄 기회는 많았다.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손길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들과 정이 들고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아쉬워하던 차에 한국 체류가 연장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좀더 느긋한 마음으로 Jeep와 바이크를 끌고 국내를 누볐다. 바쁘게만 돌아간다고 느끼던 한국을 여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니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모습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이크를 타고 강원도 설악산의 굽이굽이 굴곡진 길을 달릴 때는 이탈리아 산맥의 스틸 넘치는 커브 길을 달리는 기분이고, Jeep를 타고 한국의 삼면 바다를 따라 달릴 때는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여름 해변을 따라서 달리던 시절이 떠올랐다. 이 작은 나라가 지닌 각양각색의 면면은 한국인의 삶과 닮아 있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겨울에는 스노보드를 타고 여름에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만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특히 4월과 5월 사이, 9월과 10월 사이에 아름다움의 절정을 찍는 한국의 도로를 달리노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한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도로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같은 길로 이어진 듯하다.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을 만끽하는 길이다.

ROAD TRIP IN JEJU ISLAND

삼나무가 아치 터널을 이루는 숲길을 헤치고, 말들이 뛰노는 천연 오프로드를 달리고,
바다와 맞닿은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곳. 변화무쌍한 제주의 길을
달리노라면 맑은 날과 굵은 날이 실 새 없이 오가는 우리네 인생을 맛보는 듯하다.
길 떠나기 좋은 계절, Jeep가 먼저 다녀온 제주의 로드트립을 공개한다.



제주 동부 여행의 기착점인 성산일출봉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하루 중 언제 찾더라도 그 장엄한 풍경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하늘로 솟은 삼나무가 도열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삼나무길(왼쪽).
중산간에 오르면 제주를 채운 크고 작은
오름을 조망할 수 있다(오른쪽).

어느 곳을 기다라도 황홀한 비경을
자랑하는 제주 해변이지만 표선면에서 성산읍,
다시 성산읍에서 하도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그 풍광이 특히 빼어나다.



자유롭게 풀을 뜯는 말들과
말간 연못이 있는 제주 오프로드 어드벤처
제라친 캠프는 국내에서 드물게
자연 오프로드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제주 오프로드 어드벤처 (제라진 캠프)

조천읍 선흘리에 자리한 이곳은 Jeep의 성능을 만끽하고 싶은 오프로드 마니아에겐 맞춤 공간이다. 사방의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대지에서 오르막과 내리막, 물웅덩이와 자갈길을 달리며 4륜구동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30여 마리의 말이 방목되고 있어, 차량 옆으로 말이 무심히 지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문의 070-8880-3900

🍴 **주변맛집** 제주 시내에 있을 때부터 정갈한 밥상으로 유명한 상춘재(064-725-1557)가 선흘리로 자리를 옮겼는데,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한 요리가 여전하다. 새꼬막과 성게, 들문어 비빔밥이 계절에 따라 순위를 다룬다. 역시 담백한 맛으로 유명한 선흘꽃(064-783-5753)은 고등어구이와 뜬베고기 세트 메뉴가 인기다.



종달리해안도로

어느 해변을 가더라도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제주도지만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안도로가 바다와 맞닿은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구좌읍 하도리에서 종달리로 이어지는 종달리해안도로는 그런 면에서 최적의 구간.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한 드라이브의 맛을 느끼기 좋은 곳으로, 동쪽으로는 손에 잡힐 듯 우도가 보인다.

🍴 **주변맛집** 종달리해안도로 구간에는 젊은 감각을 뽐내는 맛집과 카페가 많은데, 화덕피자와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알로하도', 베리에이션 커피와 다양한 마실 거리가 있는 카페 '토끼쌈'도 그중 하나다. 이 장소들에서 보이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이 환상적이다.



표선해안도로

표선면에서 성산읍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로 민속해안로라고도 부른다. 종달리해안도로가 부드럽고 아기자기하다면, 표선해안도로는 강인하고 투박하다.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더미와 무심히 쌓은 돌담 등 제주 특유의 투박미를 느낄 수 있다.

🍴 **주변맛집** 제주 전역에 마을마다 있는 해녀의 집이지만 추천 맛집으로 늘 언급되는 곳이 오조해녀의집(064-784-0893)이다. 녹색 빛이 도는 전복죽이 스테디셀러다.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향촌마을(064-787-7979)의 제주도식 두루치기도 유명하다. 소박한 동네 식당의 정감에 푸짐한 어머니의 손맛이 어우러진 곳이다.

플레이스 캠프 제주

성산읍 고성리에 새롭게 문을 연 핫 플레이스. 주요 시설은 호텔이지만 단순한 숙소는 아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머물면서 동시에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캠프를 자처한다. 식당도 문턱 높은 정찬이 아니라, 건강하고 개성 강한 맛집들을 선별했다. 무엇보다 함께 요리하고 운동하고 노는 각종 클래스들이 눈길을 끈다. 문의 064-766-3000

🍴 **내부맛집** 플레이스 캠프 식음료 코너는 대부분 작은 규모와 세분화된 메뉴에 방점을 찍고 있다. 모던 한식을 표방하는 '스텝말'은 직접 담근 장을 기본으로 날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샤오츠'는 대만식 훙탕 우육면과 훙공식 상탕 우육면, 덤섬을 판매한다.



OUR OWN LEAGUE

코인사이드 크리에이티브
김원태 · 김수복 대표

광고대행사 '코인사이드 크리에이티브' 공동 대표 김원태, 김수복. 30년지기 친구 사이인 그들이 회사를 차린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둘은 성격부터 성향,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언뜻 비치는 첫인상으로도 일정 부분 감지된다. 말쑥한 차림에 선한 인상의 김원태 대표와 몸 곳곳에 드러난 문신과 긴 머리, 그리고 반항적인 눈빛의 김수복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함께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타는 차량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김원태 대표는 WRANGLER를, 김수복 대표는 할리데이비슨을 탄다.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 회자되어온 바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매년 치러지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의 톱 순위를 나란히 차지하는 이 두 브랜드는 스피드보다 길이 안겨주는 감성, 차량 자체가 풍기는 고유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끌림을 준다. 할리데이비슨을 비롯해 클래식 바이크를 두 대 보유한 김수복 대표는 두 브랜드의 공통점을 디자인에서 찾는다. "둘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예요. 외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멋에 강한 끌림을 느끼는 만큼 그들은
 이들 제품을 단순히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개성을 더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즐기지요.
 저도 할리데이비슨을 사자마자 불필요한 부품은 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웠어요. Jeep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순형이 주는 고결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오프로드 등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변형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어쩐지 그의 바이크가
 할리데이비슨의 다른 모델보다 담백해 보인다. 했다. 틀에
 벗어난 삶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과장되게 흘러가는 것을

지향하는 성향이 그의 바이크에 옷이 묻어난다. 한편,
 그라파이트 컬러의 WRANGLER 루비콘 언리미티드
 에디션 차량은 김원태 대표의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성품과 세련된 취향을 대변하는 듯싶다.
 “저 또한 김수복 대표처럼 디자인을 중시해요. 아마 저희
 업계 사람이 일반 승용차를 탄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광고 업계에서 Jeep를 탄다는 건 당연한 선택지
 중 한 항목이에요.” WRANGLER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김원태 대표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고 디자인만 강점이 아니에요. 지난겨울 빙판이
 된 서울 시내를 달릴 때 WRANGLER 덕을 톡톡히

봤죠. 다른 차들이 빙판에서 쪽쪽 미끄러지는 와중에
 WRANGLER만 힘차게 달렸어요. 전문구동의 국산
 차들도 미끄러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앞으로
 나아갔죠.” 실제로 오프로드 성능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원태 대표.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한 여행은 떠나지
 못하지만, 촬영 로케이션을 보러 다니며 짬짬이 오프로드
 성능을 체험한다. “몇 해 전 발견해 광고 촬영 장소로 종종
 활용해온 이곳 대부도 공터는 땅을 개간하다 말아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요. 그 덕에 촬영 장소를 훑는다는
 핑계로 짧게나마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차량에는 흙탕물이 된 자국이
 훈장처럼 남았다. “우리나라는 교통법상 이륜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많아요. 그 때문에 함께 달리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오늘도 대부도까지 오는 길에
 바이크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꽤 있어서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제가 먼저 출발했어요.” 아쉬움을 토로하는
 김수복 대표를 달래듯 김원태 대표가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
 혹은 오늘 달린 코스처럼 뜻밖에 한적한 길을 발견하여
 서로 기다렸다가 나란히 달리는 순간 서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정서적 교감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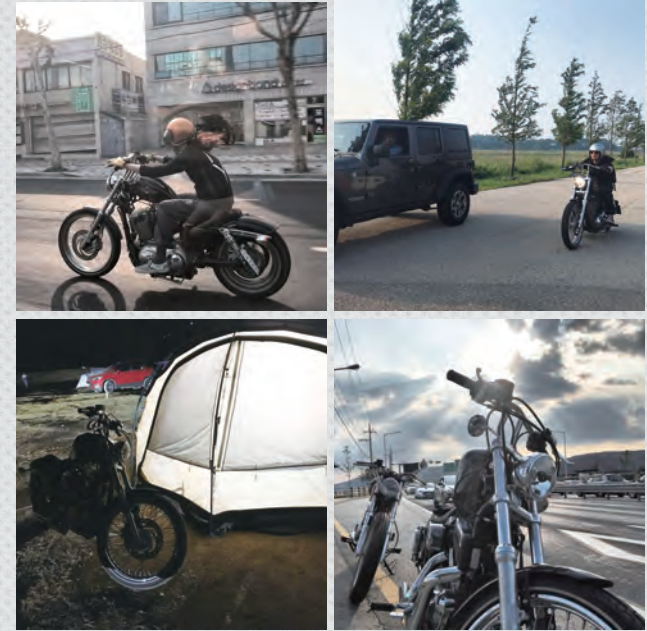




MY ROAD STORY WRANGLER 오너 김원태 대표

여름은 페스티벌이 많아서 어느 계절보다 바쁘다. 꿈쩍달걀할 수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올해는 강원도 양양을 향한 기회가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물론 다른 회사가 기획한 행사를 둘러본다는 핑계였지만,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목요일 밤 양양행 고속도로에 올랐다. 뺑뚥린 도로를 달리는 쾌감이 신선한 밤공기와 함께 온몸을 기분 좋게 감쌌다. 특히 WRANGLER는 차체가 높아 질주할 때 더 큰 해방감을 안겨준다. 하조대 해수욕장에 도착한 시간은 깊은 새벽이었지만, 달이 밝아 주변이 희했다. 차를 해수욕장 주변에 세우려는 순간, 나는 해수욕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 WRANGLER라면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고개를 든 순간 강한 질주본능이 큰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순간 기어를 넣고 턱을 두어 개 넘어 WRANGLER를 해변 한가운데에 올렸다. 길게 뻗은 하조대 해수욕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엔진을 밟자, 강력한 엔진 소리를 내며 WRANGLER가 높고 낮은 모래 구릉을 힘차게 넘었다. 조수석에 앉은 친구는 연신 불안한 기색이었으나,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는 내가 WRANGLER의 오프로드 성능을 온전히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달빛 아래 WRANGLER를 타고 해변을 질주한 그 밤의 감흥은 가슴과 머리는 물론, 액셀을 밟은 발과 운전대를 잡은 손을 통해 각인됐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무실에 고여 있는 순간순간 내 영혼을 자유로이 해준다.



MY ROAD STORY Harely Davidson 오너 김수복 대표

일상이 종종 나를 옥죄어 올 때면 즉흥적으로 라이딩을 하곤 한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게 바이크만의 특권이니. 지난봄에는 고아웃 캠프 현장에서 감독할 일이 있어 자라섬에 들렀다. 물론 바이크를 타고. 4월 말이어서 자라섬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쌀쌀했고, 그 때문에 서울에서 캠핑장을 왕복할 때 말고는 따로 라이딩을 하지 못하리라 예상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초록 일색의 캠핑장 위로 환한 햇살이 부서졌다. 이 정도 날씨면 외투를 벗고 반팔 차림으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변 따라 뻗은 길도 좌우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운 게 라이딩을 즐기기에 최고의 조건을 이루기도 했다. 친구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이크에 올라탔다. 바람을 느끼고 풍경을 감상하며 한참을 달린 우리는 길에서 발견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겼다. 바이크가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그날그날의 바람을 느끼고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날 우리가 공유한 감정들은 공통의 추억으로 남아 술자리에서 때때로 회자된다. 물론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다. 속초까지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지인의 말에 즉흥적으로 출발했는데, 6시간 넘게 달려야 했던 적도 있다.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컴컴한 도로 위에서 보낸 탓에 풍경을 즐길 새도 없었고, 여행은 엉망진창이 됐다. 물론 친구들끼리 웃어넘길 추억거리는 생겼지만.

MY JEEP Story

Jeep 오너 이야기

길 위에 선 Jeep 오너들은 누구보다 계절을 진하게 만난다.
파도 위에서 여름의 막바지 햇살을 만끽하기 위해 달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떨어진 시간을 위해 망망대해로 나서며,
알싸한 가을 새벽 공기를 들이쉬기 위해 숲길을 가른다.



CHEROKEE

이준화



“카약피싱을 즐긴 지 어느새 5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해안가에서 낚시를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줄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가 하는 낚시를 선택했어요.”

바다는 한결같은 듯하지만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여름만 바다의 계절이라 생각하지만, 이준화 씨는 겨울도 봄도 제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낸다고 말한다. 가을 바다는 그야말로 풍성 그 자체다. 고기를 낚는 재미와 고요함 속에 무아지경에 빠지는 기쁨이 공존하는 바다라 하겠다.

“어슴푸레한 새벽, 작고 가벼운 카약에 올라 훌쩍 바다로 나가 혼자 해 뜰 때까지 망망대해에서 낚시를 즐기는 맛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온몸과 마음을 관통하는 해방감, 자유로움이랄까요. 새벽에 CHEROKEE를 타고 혼자 드라이빙할 때면 그 기분이 고스란히 재현되더라고요. CHEROKEE와 함께 텅 빈 거리를 따라 푸른 새벽을 가르면 내 속에 숨어 있던 야성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RENEGADE

김환석



“디자인에 민감한 편이에요. 자동차를 고를 때도 디자인을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따져요. 얼마 전부터 서핑의 놀라운 매력에 빠졌는데 그 결과 차를 바꾸었어요. 새 차를 고민할 때 제 눈에 들어온 유일한 차가 바로 RENEGADE였어요. 서핑을 위해 발리로 출국하면서 돌아오는 날 신차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죠. 돌아와선 다다음 주에 그 RENEGADE를 타고 양양 쪽도로 향했어요. RENEGADE는 소형 SUV여서 운전이 정말 용이한데, 서핑이며 캠핑 용품을 잔뜩 싣고 여행하기 좋을 만큼 실내 공간이 넉넉해요.”

그는 1년 전쯤 파도 위에서 여자 친구를 만났다. 둘 다 주말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RENEGADE에 짐을 싣고 서핑 스폿으로 향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밀린 수다를 떨고, 바다에 도착하면 파도가 좋아질 때까지 RENEGADE에서 단잠을 잔다.

“이번 여름에는 여자 친구와 휴가 날짜를 맞춰 부산 송정에 다녀왔어요. 낯선 풍경에서 서핑을 즐기니 전혀 새로운 기분이 들더군요. 잊지 못할 이번 여름 추억을 만드는데 RENEGADE가 큰 몫을 했지요.”





WRANGLER

남선희

새하얀 털을 휘날리는 사모메드 '설화'와 함께 빨간색 WRANGLER에서 내려선 남선희 씨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라이더 재킷을 입고 무표정하게 바이크에 오르는 모습만 보자면 시크하다 못해 도도해 보이기까지 한다. "도도요? 완전 반대예요. WRANGLER와 함께 낯선 길을 달리는 것, 활리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순정파에 가까운 걸요."

10대 시절 보통의 또래 여학생들이 이야기지기한 문구류나 예쁜 옷가지에 빠져 있을 때부터였다. 그녀는 100미터 앞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각 프레임의 WRANGLER에 가슴이 뛰고, 특유의 진동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할리데이비슨 팻보이에 눈길이 갔다.

"어릴 때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막연히 두근거리고 갖고 싶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 **제가 원하는 건 자유를 향하는 삶이더라고요. Jeep WRANGLER와 할리 팻보이는 제게 자유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다다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향만큼은 향하고 있다고 봐요. 그 방향으로 달리는 데 WRANGLER와



“펫보이들은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고요.” 실제로 남선희 씨는 남들이 가는 방식대로 따라가기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본인의 가게를 시작했다. 가게는 고맙게도 기대만큼 자리를 잡았고 단골 고객도 꾸준히 늘어 5년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를 어느 날 훌쩍 털고 기간을 알 수 없는 긴 여행에 돌입했다. 이쯤에서 방향을 틀어야 자신이 가고 싶은 자유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자신을 여행자라고 소개한다. 석달을 넘긴 제주도 여행에서 막 돌아왔지만, 마음과 기억은 여전히 그 바다와 오름과 올레 위에 가 있는 상태기도 하다. “여행에도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만의 시공간이



꼭 필요한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외떨어진 섬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런 여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데 WRANGLER가 큰 역할을 했죠. WRANGLER는 이번 여행 내내 저와 설희의 든든한 베이스캠프였어요. 설희도 움직이기 편해선지 WRANGLER를 정말 좋아해요. 외부에선 낯선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는데, WRANGLER에 타려고 하면 자기 차라는 걸 생색이라도 내듯 엄청 경계하고 짚는다니까요.” 훌쩍 떠난 그녀의 보조석을 지킨 것이 설희다. 2012년 4월 갓 태어난 설희를 만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녀는 설희와 함께 성장해 왔다. 늦봄부터 시작해 가을 냄새가 날 때까지 이어진 이번 여행은 그녀는 물론 설희에게도 만만찮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남선희 씨는 설희와 함께여서 즐거웠고, WRANGLER가 있어 편안하고 든든했으며, 예상치 못한 고마운 인연들로 정말 행복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오늘의 캠핑은 이번 제주 여행에서 만난 인연들과 재회하는 자리다. 여행 내내 마음을 다해 느끼고 충실히 기록하며, 돌아와선 그 사진 기록을 통해 그때의 느낌과 다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녀. WRANGLER와 함께하는 그녀의 다음 여행이 궁금해진다.

MY First RIDE

PKM
피케이엠 갤러리

인플루언서 시승기

Jeep를 만나는 건 어쩌면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가려는 방향을 보고 온몸으로 길을 느끼는 시간. Jeep의 시간을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RENEGADE

이원우

주목받는 현대 미술 작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목욕탕 행화탕 오피닝, LA 에이스호텔 전시를 가졌다.

“RENEGADE는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Jeep의 이미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어요. 한데막상 RENEGADE를 직접 타보니 감각적인 디자인 속에 Jeep의 아이덴티티가 함축적이고 은유적으로 녹아 있는 모습이더군요.”

심미안을 너머 빼어난 관찰력을 자랑하는 이원우 작가는 RENEGADE와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한 듯하다.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함축적으로 은근하고 재치 있게 표현하는 본인 작업과의 공통점 말이다. RENEGADE를 구석구석 살피는 그의 예리한 눈이 반짝인다. Jeep를 잘 모르는 사람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배지에 머무는 시선이 길어진다.

“저는 디테일에 관심이 많은데, RENEGADE TRAILHAWK에는 붉은색으로 테를 두른 RENEGADE 글자와 강렬한 붉은색 Trail Rated 배지가 절묘하게 박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작업 도구를 넣고 다닐 수 있는 넓은 적재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RENEGADE

최휘찬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2016 출연자 중
top 7에 오른 화제의 밴드 코로나 드러머.

“제가 처음 드럼에 빠진 이유는 부술 듯이 힘껏 내리치는
강하고 남성적인 퍼포먼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드럼을
알면 알수록 이 악기가 얼마나 섬세한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에게 RENEGADE는 딱 드럼 같은 차다. 강렬한
첫인상에 파워풀한 동력만 기대했는데, 막상 타보니
승차감부터 편의기능, 디자인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져
놀랐다. “니켈백의 ‘Burn it to the ground’를 크게
들어놓고 RENEGADE의 가속 페달을 밟으니 정말 음률
속을 뚫고 달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Jeep고, 그래서
RENEGADE구나, 싶습니다.”





GRAND CHEROKEE

신기주

남성지 <Esquire> 편집장, <한밤의TV연예>
<임윤선의 블루베리> 등 각종 TV 프로그램 패널로 활약 중이다.

신기주 편집장은 편집장 타이틀을 달기 전 Jeep의 전 차종을 타고 미국 유타 주에 소재한 아치스 국립공원을 질주한 적이 있다. 오프로드 축제 Jeep 잼보리(Jeep Jamboree)에 참가한 것. “그때 다녀와서 쓴 기사의 제목이 ‘남자와 광야’였어요. 광야 한복판까지 Jeep를 몰고 나가니 Jeep가 남자를 이끄는 차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도시를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은 열망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이유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일 수도 있지만, 말 한 필이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Jeep에 오르는 순간 떠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기주 편집장은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자 중 자신이 가장 운전을 잘했다고 회상한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는 의문이 든 순간, 그는 손을 크게 젖는 동시에 웃으며 “온전히 Jeep를 믿은 덕”이라고 했다. “조금 타보니 ‘Jeep가 있으면 웬만한 도전이다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75도 이상의 급경사를 WRANGLER는 물론 GRAND CHEROKEE로도 올랐어요. GRAND CHEROKEE는 도심을 기반으로 개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직각에 가까운



경사를 거뜰히 오르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반산반의했으니 운전대를 잡은 제 자신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신 편집장은 그 순간 운전대를 통해 전해진 강한 신뢰감, 유대감에 안도하며 국립공원을 거침없이 누볐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GRAND CHEROKEE의 반전 매력에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한다.

“차체나 성능은 굉장히 강력하데, 실내 공간은 여느 SUV처럼 편안하고 아늑했어요. 아이 아빠로서 차를 고를 때 아이가 뛰놀 수 있을 만큼의 너른 실내 공간과 어디든



안심하고 데려갈 수 있는 장비 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GRAND CHEROKEE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남성지 편집장인 그는 Jeep가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여자들도 선호하는 차라고 정의 내린다.

“<Esquire>는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제시하는 잡지입니다. 섬세한 남자, FM 같은 남자, 잘 노는 남자 등 다양한 성향과 정체성을 가진 남성들에게 그에 걸맞는 패션과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Jeep는 정체성이 확실한 남자 같아요.”

아치스 국립공원에 다녀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기주 편집장은 서울 도심에서 GRAND CHEROKEE를 타며 그때를 꿈꾼다. “하루빨리 은퇴하여 Jeep를 타고 광야로 나가야겠다,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차예요. 언제든 떠날 태세를 갖춰주는, 그런 차 말이에요.”

NEWS & EVENTS

JEEP DRIVE THRU @ GO OUT CAMP

Jeep Korea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태안 몽산포 오토캠핑장에서 열리는 GO OUT CAMP에 참가, 'Jeep Drive Thru' 이벤트를 펼친다. Jeep Drive Thru는 차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픽업하는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에 Jeep 시승 기회는 물론 Jeep만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오프로드 코스를 결합한 것. 참가자는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Jeep 차량을 타고 사면경사로를 지나 메뉴를 주문, 시소 장애물을 넘은 후 결제하고, 마지막으로 오르막 코스에서 주문한 메뉴를 픽업하는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메뉴는 바비큐를 기반으로 한 세트메뉴, 폴드 포크 샌드위치, 미트볼 스파게티 등 푸짐하면서도 캠핑 감성을 담은 아메리칸 다이닝으로 구성했다. 체험을 마친 참가자는 Jeep Korea가 마련한 쾌적한 라운지에서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





RENEGADE NIGHT EAGLE EDITION

Jeep Korea는 RENEGADE의 세련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한 디젤 모델 RENEGADE 나이트 이글 에디션(NIGHT EAGLE EDITION)을 새롭게 출시했다. RENEGADE 나이트 이글 에디션은 RENEGADE LONGITUDE 2.0 AWD 디젤 모델 기반으로,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2.0L 터보 디젤 엔진, 9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어 강인하고 공격적인 출발과 부드러운 주행을 자랑한다. 블랙 색상이 적용된 전후면 Jeep 배지와 그릴, 측면의 블랙 RENEGADE 배지, 후면의 블랙 NIGHT EAGLE 배지, 글로스 블랙 18-인치 휠 등은 강인하고 특별한 느낌을 선사한다. 실내 역시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스티어링 휠 베젤, 대시보드 베젤 등에 글로스 블랙 컬러를 적용하고, 시프트 노브에는 메탈 다이아몬드 액센트를 주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WRANGLER UNLIMITED WINTER EDITION

Jeep Korea는 한계와 싸우는 겨울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WRANGLER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UNLIMITED WINTER EDITION)을 출시했다. WRANGLER 언리미티드 사하라(UNLIMITED SAHARA)를 베이스로 개발된 4-도어 스페셜 에디션인 WRANGLER 언리미티드 윈터 에디션은 커맨드-트랙(Command-Trac) 파트타임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해 도심에서는 안정된 주행 성능을, 오프로드에서는 안정성 높으면서도 짜릿한 돌파력을 동시에 제공한다. 브라이트 화이트(Bright White), 엑스트림 퍼플 펄(Xtreme Purple Pearl), 파이어크라커 레드(Firecracker Red) 세 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Jeep, WSL과 파트너십 연장

Jeep가 월드 서프 리그(WSL)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하는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Jeep는 WSL 자동차 부문 공식 독점 파트너사로 활동을 지속하며, 남녀 챔피언십 투어인 WSL Jeep Leaders Tour도 이어진다.



AT YOUR CONVENIENCE

렉스모터스 성동 이완규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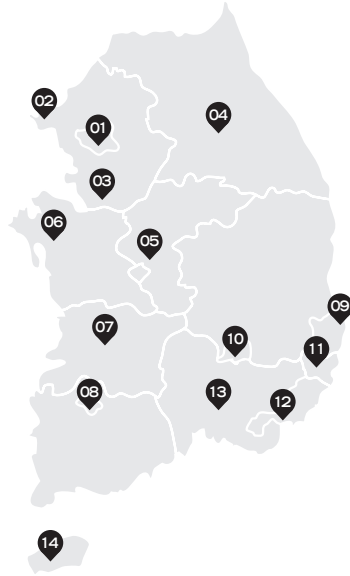
꽤 막힌 도심이든 장거리 고속도로든 움직이는 차량은 종종 어딘가 불편한 구석이 생기게 마련이다. 사람이 탈이 나면 병원에 가듯 자동차는 불편하면 서비스센터로 향한다. 험로를 피하기보다 즐기는 Jeep 오너들에게 서비스센터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Jeep Korea 성동 서비스센터(렉스모터스 성동)는 매일 평균 30여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한 달이면 약 600대, 일 년이면 약 7,200대의 차량이 이곳에서 매만져지고 정비된다. 이 중 난이도 높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해결사가 바로 이완규 차장이다. Jeep맨이 된 지 8년을 넘긴 그는 정비 부문 최우수사원에 선발되어 이탈리아 Jeep 본사를 두 차례나 다녀온 실력자다.

고객이 느끼는 불편 증상은 알맞게도 서비스센터에 오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설명하는 고객도 이를 찾아 고치려는 정비 담당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끈기와 성실로 무장한 이 차장은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고객의 설명을 숙지하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뒤진다. 1년이 넘게 애를 먹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결한 미세 소음 건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의 실력과 성실함을 자랑하는 그지만 겉모습만 쓱 보고 모든 증상을 알아맞히는 ‘신공’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간혹 마음 급한 고객이 ‘왜 딱 보면 모르느냐’고 할 때가 가장 난감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4륜구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맛을 즐기는 Jeep 마니아 고객이 훨씬 많다고 그는 말한다.

“저도 Jeep 입사 전에는 4륜구동의 시스템이나 회로 트랙을 원활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Jeep에 입사해 케이스를 거듭하면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는 기쁨뿐 아니라 테크니션으로서 성장한다는 보람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센터에도 선진국처럼 경력 많은 초로의 테크니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SERVICE

CENTER

01_서울

씨엘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
1588-4450
렉스모터스 성동 서비스센터
02-462-3131
빅토리오토토모티브 서초 서비스센터
02-3478-0009
프리마모터스 강서 서비스센터
02-6925-0393

02_인천

정은모터스 인천 서비스센터
032-581-0166

03_경기도

프리마모터스 일산 서비스센터
031-922-0117
보성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031-237-4230
빅토리오토토모티브 분당(용인)서비스센터
031-896-0005

04_강원

강원모터스 원주 서비스센터
033-766-6301

05_충북·대전

렉스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043-277-3320

06_충남

비전오토모빌 천안 서비스센터
041-523-2211

07_전북

라운모터스 전주 서비스센터
063-271-7300

08_전남·광주

선일모터스 광주 서비스센터
062-676-8371

09_경북·포항

경북모터스 포항 서비스센터
054-283-5336

10_대구

대경모터스 대구 수성구 서비스센터
053-564-0110

11_울산

우진모터스 울산 서비스센터
052-272-7600

12_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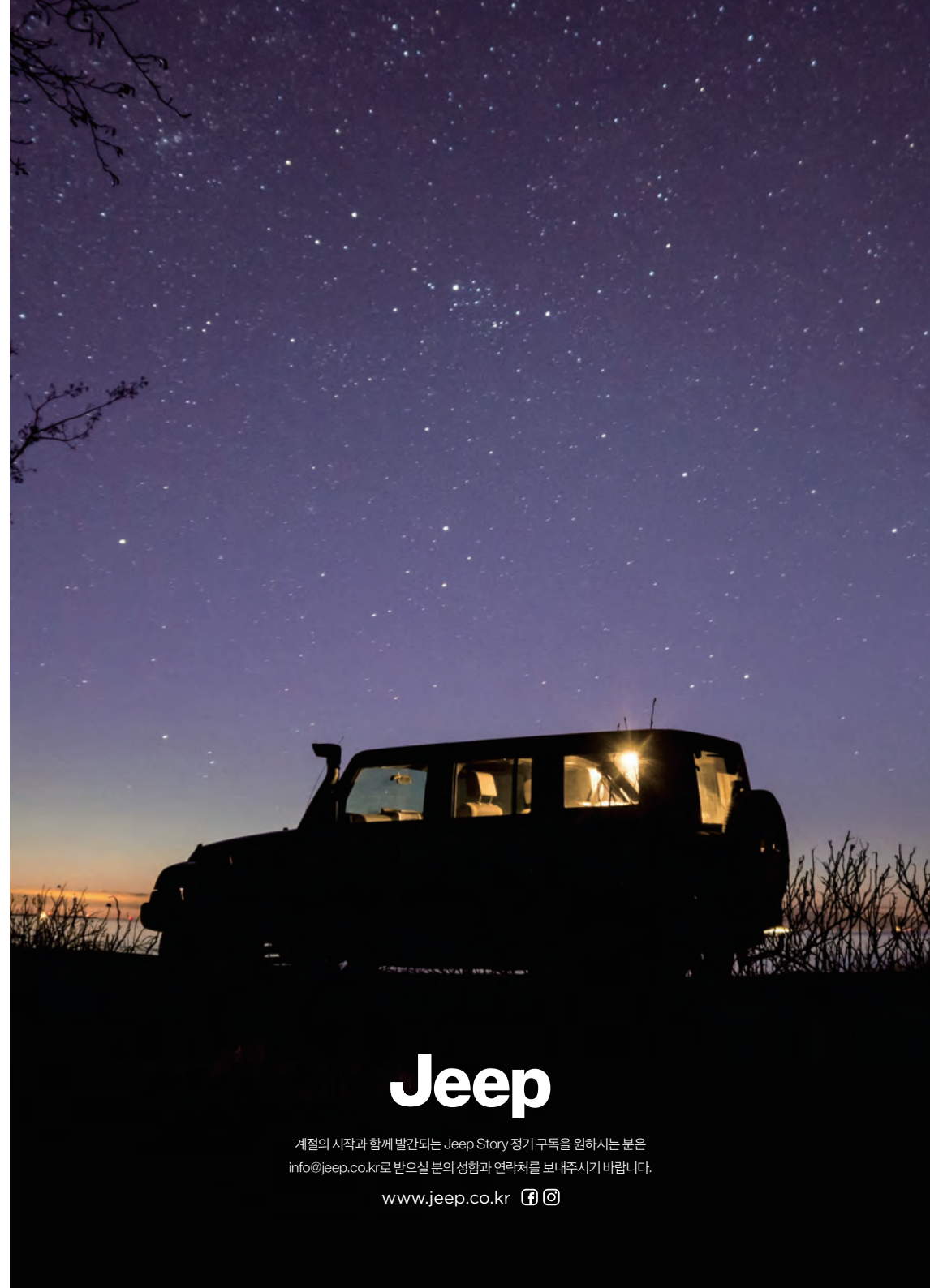
우진모터스 남천 서비스센터
051-755-8572
해운대 서비스센터
051-755-8572

13_경남

대경모터스 창원 서비스센터
055-296-100


14_제주

프리마모터스 제주 서비스센터
064-745-4588



Jeep

계절의 시작과 함께 발간되는 Jeep Story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info@jeep.co.kr로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ww.jeep.co.kr  

Jeep[®]



QR코드 찍고 특별한 행운을 잡으세요!

www.jeep.co.kr 